망상은 바로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근원이고 거름입니다

☞ 19면에서 계속

다. 개개인의 자가발전소에 에너지가 듬뿍 있다고 합시다. 전력이 들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용도에 따라서 수없이 쓰임 쓰임이 다가올 때 그 전력으로 다 쓰게 되면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천하가 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그대로 통신이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될 겁니다. 밥을 지으려면 밥 짓는 전력이 조금 들어가겠죠. 모터를 돌리려면 전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거를 자기 자신들이 대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행복도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행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관습에 의해서 조상의 탓을 하지 않으면 자기 팔자 한탄을 하고 또 남의 탓을 하고, '너 때문에 망했느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 허탕한 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외려 그렇게 해서 분기를 돋아서, 모닥불을 지르는 것과 같아서 병이 들죠. 네 탓 내 탓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금방에 넝마 있는 거 보셨습니까? 넝마전에 금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상점에 가서 사과하고 배하고 한데 섞어 놓은 거 보셨습니까? 끼리끼리 끼리끼리, 전부 같이 끼리끼리 그, 같은 거에서도 굵은 거, 중, 하 이렇게 골라서 놓으면 놨지, 절대로 같이 섞어 놓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차원에 따라서 차원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차원끼리 만나는데 누구 탓을 합니까. 모든 게 네 탓 내 탓 할 게 없이, 아,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부모자식지간에 살면서도 '아, 이거는 모든 게 내 탓이로다' 하고, 똑같은 사과끼리 만났으니 어디가 병이 들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남을 원망 안 하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서로가 위해서 해 준다면 항상 화목할 것입니다. 돈도 요렇게 들여다보면서 갈기갈기 찢고 야단법석을 하는 집이 아니라면 '아, 요 집에 들어가면 행복하겠구나.'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싸우고 아귀다툼을 하고 때리고 그러는 가정이라면 돈도 안 들어갑니다, 약아서. 돈도 생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차적으로는 자식들이 본받는 게, 보고 배우는 게 그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 대를 물려서 또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반면에 외려 더 빗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한 철 탤런트가 소임을 맡아서 막이 내릴 때까지 그 역을 맡아서 하듯이 우리 인생 한 철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애들도 소꿉장난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면 그, 돈을 만들어서 쓰던 거 뭐, 장난감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손 툭툭 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지만 긴 것도 아닙니다. 한 철 동안에 이 정신계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뿌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자기는 한 생을 거쳐서 세세생생을 얻으리라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자유권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계를 우습게 생각한다면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무시하는 것밖엔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대 성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라." 하고요. 타의에서 형상을 구하고 이름을 구한다면 그거는 도깨비장난과 같고 귀신 장난과 같으니라. 그리고 공덕은 하나도 없느니라. 제가 거짓말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말입니다.

>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 남을 원망 안 하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 부드러운 행동을 서로가 위해서 해 준다면
> 항상 화목할 것입니다.

돈 좀 들어오게 해 주세요

질문 코로나 사태 이후 제가 하던 일이 없어져서 생계를 꾸려 나가기가 막막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봉양도 해야 되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올 구멍이 안 보여요. 돈 좀 들어오게 해 주세요.

답변 이 돈이 말이요, 돈도 생명이 있고 모든 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 돈 하나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움죽거려요, 이것도.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하게 모든 걸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거기서만이 나를 형성시켰고, 거기서만이 지금 병도 낫게 할 수 있다.' 하고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내가 엎드러져도 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열치열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력과 광력과 통신력이 충만하니까 거기서 언제든지 마음을 넓게 쓰고 돌아가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돈도 슬그머니 나를 쫓아와요. 내가 따라가면 자꾸 도망가고, 내가 같이 한마음이 돼 주면 그냥그냥, 그 돈이 아주 따뜻한 데로 오게끔 돼 있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사람도 따뜻한 데로 고이고, 내가 아내와 부부 사이를 맺었어도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데서 부부가 따뜻해지지 '어휴, 저거 또 뭐라고 그럴까 봐….' 하고 하지 못할 말이 있으면 벌써 그건 참다운 부부가 못 돼. 그런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어떠한 문제도, 예를 들어서 '짐승 하나를 내가 건진다' 이럴 때도 내가 그 짐승 속에 들어가서 짐승이 돼 줘야 그걸 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달아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속에 내가 돈이 돼서 들어간다면 돈하고 얼마나 같이 합쳐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돈도 될 수 있고 뭐, 모두 다, 물도 될 수 있고 흙도 될 수 있고 미생물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도 나 아니라고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이 소립니다. 전부 나이기 때문이죠.

이런 예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고개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멈춰 있어요. 그런데 아, 고개가 이게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프고.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돌린 채 어떤 남자가 나한테 들어와서 그냥, 부처님한테 가서 하는 거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나한테 고개는 이럭하고 공손히 절을 삼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거기는 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깔고 앉은 방석밖엔. 참,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에이, 나같이 무지렁이 같고 모자라는 사람 앞에 저렇게 지극하게 남자가 절을 하니 세상에 저렇게….' 그렇게 참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렇구나!' 하고선 생각을 하곤 "고개는 왜 그렇소?"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갔어요. 버스 간에서 버스를 타다가 누가 옆에서 탁 치니까 그냥 "아이,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러는데 그냥 고개가 휘딱 돌아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개가 마음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무슨 무얼 하고 자시고 이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서로 사랑하고, 자비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지, 요새 "사랑 사랑" 하는데 나는 그 사랑이 너무 천해서 죽겠어요. 사랑을 한다 그래도, 사랑을 한다고 둘이 죽자사자하고도 다 돈 뺏어 가지고 도망을 안 가나 사람 죽이고 가질 않나, 이런 판국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둘이 아니게만 볼 수 있고 둘이 아닌 행을 그대로 한다면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뭐, 나다 너다 할 거 없이 그게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 병이 낫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더러 또 이렇게 묻더군요. "스님은 왜 주머니에 들어갈 사이가 없이 돈을 누굴 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아무리 그래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도 누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랬죠. "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 마음 편안하자고 그러는 거지. 그게 나이기 때문이지."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게.

요즘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보면 모두들 부자가 되기만을 고대를 하고 그러는데 부자는, 아, 우린 지금 철새처럼 이렇게 다녀도 부자예요. 나는 돈을 이렇게 누구한테 받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도 벌써 어디 가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주머니 털어 줘야 됩니다. 주고 다녀야지 이놈의 게 글쎄, 누가 주면 금방 나가고 주면 나가고 주면 나가고, 이러니까 들어오지 내가 주머니에다 돈을 자꾸 쌓아 보세요. 그놈의 돈들이 그냥 도깨비가 돼 가지고, 질문하신 분이 그 도리만 알면 누구 마음에 돈 주고 싶은 생각이 그냥 불현듯 들어 가지고는 주게 되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냥 엄청나게 생겨서 장사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 회사 잘되니 좋지, 나 돈 생기니 좋지, 가정 화목하니 좋지, 내 마음 편안하니 좋지,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래서 이게 세상 살맛이 있는 거지요.

세상 맛이라는 게 뭡니까? 네? 뭐, 돈을 이렇게 쌓아 가지고 다녀야 부잔가요? 나는 안 쌓아 가지고 다녀요. 왜? 전부 내 돈이니까. 아, 그런데 왜 그거 무겁게 가지고 다닙니까, 글쎄?

친구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질문 저의 친구가 얼마 전부터 이상해져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학교 다닐 때 매우 밝았던 친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할까요?

답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다 몰아서 그냥 저 용광로에다 집어넣듯이 진짜로 믿고 주인공에다 그냥 탁 놔 버려요, 타 버리게. 그렇게 하시고 '주인공 당신만이 이걸 지도해 주고 이끌어 주실 수 있고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가 자꾸 관하세요. 댁의 마음이 진정코 진실하다면 그건 오래 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몸에서 생길 수도 있고 타의에서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영계성에서 생길 수도 있고 유전성에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그거를 다 없애려면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몽땅 쥐어서 몽땅 놓아야죠. 그거는 이 공부를 유년 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못 해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전부 해결하려면요. 그러니깐 그냥 몽땅 놓으면 그게 다 해결이 난다는 걸 굳게 믿고 다 그냥 놔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뭘 차려 놓고 뚜들기고 그런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과감히 그냥 거기다가 놓으세요.

